

대학도서관의 教育·研究 支援機能 강화

李 和 國

(全北大 化學教育科)

1. 머리말

대학의 도서관은 가끔 대학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대 대학의 기능은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이들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교육과 연구의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다. 또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아직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운영체제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풍부한 연구와 교육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장서의 축적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며, 따라서 한 대학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그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가장 타당한 척도가 된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 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1,200만 권이 넘으며, 예일대는 900만 권 이상, 스탠퍼드대가 8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50대 수준의 대학교들은 대개 3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100만 권 이상의 장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대의 총 장서수가 겨우 100여만 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양적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시키고 있는 우리의 대학이 장서수에서는 이처럼 뒤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 연구 여건의 미비가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물론 반세기에 불과한 현대 대학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라는 자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세기 말까지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이 먼저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 기능의 강화 없이는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대학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대학의 도서관이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전자책의 등장, 광파일링시스템의 일반화, 교육전산망과 학술전산망의 구축 정책 등으로 대학도서관의 위상, 역할 및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학도서관의 교육과 연구 지원 기능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수의 입장에서 대학도서관이 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희망사항을 몇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2. 教育 支援 기능의 強化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 교육을 잘 시켜야 하겠다. 또 학생들의 수업에 참고할 도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과제도서실을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사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들이 장서에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가식으로 운영하며 도서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도 교육 지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방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도서관 利用 教育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실한 도서관 이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도서관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국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의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분적인 도서관의 이용조차도 학습자료나 과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보다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독서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들의 도서관 이용 요령은 매우 미비할 수밖에 없다.

많은 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대학생활

안내』 등의 책자를 제작해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습 방법, 과제물 작성법, 도서관 이용법 등을 지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생활 안내가 너무 단기간에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1학점 정도의 정규 과목으로 설정하여 여기에서 보다 충실하게 대학도서관 이용법 등 대학생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대학도서관도 점차 도서관 관리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문헌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컴퓨터 검색을 해야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이 직접 장서에 접근하는 開放式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절한 문헌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학 도서관의 분류체제와 검색시스템에 친숙해져야 한다. 아직 도서관리업무가 전산화되지 아니한 대학에서도 도서목록을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학 도서관의 분류체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대출과 반납 제도, 열람실 이용 규칙,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그 이용법 등도 도서관 이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또 다른 교육내용으로는 대출된 자료를 깨끗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 내용이다. 부끄럽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公共物을 개인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아끼는 지극히 당연한 공중도덕이 자리잡히지 못하였다. 대출된 도서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고, 낙서와 밀줄로 책을 더럽히고, 책을 함부로 다루는 등의 불행한 일들이 대학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컴퓨터 디스켓이나 CD롬 등의 대여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들을 주의해서 다루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문헌을 복사해 주거나 본인이 복사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자료의 복사는 많은 경우 著作權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 주어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조건이 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2) 圖書와 課題圖書室의 확보

대학생들은 신학기가 되면 수강과목의 수업계획서 또는 강의계획서를 배부받게 된다. 대개 한두 쪽으로 된 이 수업계획서에는 수업목표, 교과목의 개요, 수업내용과 진도, 학습평가 계획과 함께 주요과서와 참고서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참고도서들은 주요제 내용의 보충과 함께 과제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수업계획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요과서 이외의 참고도서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수업계획서가 작성 및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업계획서에 나타난 참고도서 모두를 실제로 참고하여 학습내용을 보충하고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물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은 수업계획 작성시 참고문헌의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와 함께 그 대학의 도서분류번호를 적어 넣어 학생들이 손쉽게 참고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단일 참고문헌이 대학에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미리 연락하여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도서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 과제도서의 경우에는 그 도서를 많은 학생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강학생수를 고려하여 한 종류의 도서를 여러 권 확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기간을 단축하거나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과제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도서만을 모아두는 과제도서실을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학사과정의 학생들이 빈번하게 이용해야 할 과제

도서를 대출하기 위하여 본 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면 관리나 이용 면에서 모두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과제도서실 옆에는 복사장비를 충분히 설치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복사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또 마이크로 자료나 컴퓨터화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필름 리더나 컴퓨터를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하겠다. 한편, 과제도서실은 기타의 도서실보다 개관시간을 늘리거나, 24시간 개관을 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용편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專門司書의 확보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는 과거 100만 년 동안에 축적해 온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창출하였다. 기존 학문은 분화될 거듭했고, 두 분야 이상의 학문으로부터 새로운 학문 영역이 탄생하여 각 대학도서관에서 신규 장서를 분류하는 일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지식의 발달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도서관의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는 업무는 더욱 전문화 및 세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각 대학도서관은 규모에 따라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에 이르는司書를 확보하여 情報流通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조사된 미국과 캐나다 대학도서관의 운영비 지출통계에 의하면 전체 운영비 중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 도서대출 업무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전문사서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무려 1,240만 원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도서관인 하버드대 도서관에는 약 천 명의 정규 직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 대학교 도서관에는 300~500명 수준의 정규 직원이 일하고 있다.

각 학문 분야별 전문사서는 신규 도서의 분류작업의 수행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그 분야에 관한 대학도서관 소장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소개해주고 필요한 문헌을 찾거나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사

회에서는 정보의 단순 암기나 저장 업무의 대부분을 컴퓨터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정보처리체제에서 인간이 담당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조직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사서를 통한 특정 전공 분야의 정보체제의 구조와 활용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전공과목의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게 간주될 것이다.

4) 開架式 운영

대학도서관은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장서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開架式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장서의 분실과 관리 문제 및 운영비 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이 도서목록을 조사하여 필요한 도서의 대출을 신청하는 閉架式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도서관의 개가식 운영은 선진국 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화된 제도이다.

대학도서관의 개가식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가장 우수한 오리엔테이션 방법이다. 필자는 약 30년 전에 벌써 개가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던 소규모 기독교계 대학을 다니면서 여유시간이 있을 때면 대학도서관에서 다양한 서적을 뒤적이면서 지냈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분류번호 374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화학 분야의 전공문헌을 하나씩 뒤적이며, 화학 분야의 대학 교과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줄줄이 진열되어 있는 화학 분야의 학술잡지를 접하면서 화학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정보가 圖書로보다는 CD 롬의 형태로 제공될 전망이어서 학생들이 넓은 장서 특유의 냄새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넓은 공간을 뽕뽕이 채우고 있는 藏書에 한편으로는 威壓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도서를 아끼는 마음을 길러주고 도서관리를 컴퓨터화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도서관을 開架式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

기를 기대해 본다.

5) 圖書管理 업무의 電算化

司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필수적이고도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도서대출 업무를 전산화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도서검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에는 소장 도서의 체계적 분류와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수반되는 자료의 전산입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십 만 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전산화 업무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도서관의 전산화 업무는 대출관리의 전산화, 檢索 시스템의 구축,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 중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대학 전체의 행정업무 전산화의 일부로 수행될 것이므로 도서관 고유의 전산화는 아니다.

도서대출 업무는 자료의 입력 문제가 해결되면 간단하게 전산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학생과 교수들에게는 도서관 출입과 도서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되고, 이 카드를 이용한 도서대출 실태가 컴퓨터에 의해 정리된다. 그러나 바람직하기는 도서관 출입과 도서 대출을 위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지 말고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을 카드로 발급하고 이 카드 하나로 도서관이나 전산실의 출입과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업무 전산화의 뜻은 文獻檢索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情報檢索을 가능하게 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요즘엔 컴퓨터 성능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고 우수한 정보 검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된 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 모두가 대폭 떨어져 대학도서관의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이미 도서의 저자나 도서명, 분류번호 등만으로 한정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대학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저자나 도서명에 의한 검색 이외에도

索引語(key word)를 組合하여 관련된 文헌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化되어 있다. 즉, '고등학교 학생의 과학탐구력 평가'에 관한 文헌을 찾고자 할 때는 '고등학교', '과학탐구력', '학습평가'라는 색인어를 입력시키면 그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관련 文헌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各 文헌의 색인어를 작성하고 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研究支援기능의 強化

대학의 연구는 교육, 사회봉사와 함께 현대 대학의 3대 기능으로 불려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교수의 신규채용과 승진 등에서 연구실적을 가장 중요시 해왔다. 따라서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집착과 압박이 외국의 대학교수보다 훨씬 심했으며, 겨우 석사학위를 취득해 대학교수에 임용된 세내기 교수도 중진 교수와 마찬가지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대학의 경우 교수는 자신의 희망과 대학의 필요에 따라 연구만을 수행하거나, 연구는 하지 않고 교육만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는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비의 분산으로 연구기능도 약화되고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교육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대학교수의 연구에 대한 恣意的 또는 他意的 요구는 매우 강하나, 모든 교수들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研究力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연구를 지원해주는 연구의 下部體制가 매우 미약했다. 즉, 우선 교수의 연구를 도와줄 박사과정 학생이나 연구 조교가 부족했고,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할 연구비와 선행 연구결과를 조사하는 데 이용될 연구문헌도 부족했다.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지원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교수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문헌을 확보해 주고, 연구관심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연구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학술지의 확보, 목차속보 제공, 전문사서의 확보, 학위논문 관리, 외부 연구문헌의 제공,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외 도서관의 운영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1) 전문 學術誌의 확보

대학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다량의 전문 학술지(academic journal)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대학도서관은 '91~'92년의 전체 운영비 중 31.5%를 문헌구입비로 사용했으며, 이 문헌구입비의 2/3 정도가 학술지 구입에 쓰였다. 학문이 발달할수록 전문화된 학술지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입비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 다행히 근래에는 학술지가 인쇄된 책자와 함께 비교적 값이 싼 마이크로필름이나 CD롬으로도 발간되기 때문에 학술지 구입경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입에는 최신 학술지를 계속 또는 신규로 구독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에 발간된 back issue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참고문헌들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back issue가 절실하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교수나 대학원생들에게는 선행연구의 문헌조사를 위한 관련 분야 학술지의 back issue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론 모든 대학의 도서관들이 수없이 많은 전문 학술지를 모두 구독하거나, back issue를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대학의 도서관은 그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의 학술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이에 학술지 구입에 관한 協議體制」만들어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느 대학인가는 필요한 학술지가 구입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학술지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㉔

많은 외국 학술지의 구독료가 高價이기 때문

에 오랜 전통이 있는 외국 학술지의 모든 back issue를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다행히 최근에는 마이크로필름이나 CD롬 형태로 back issue를 제작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학술지는 인쇄로 된 책자보다 저장을 위한 공간이 훨씬 적게 필요하고, 검색 속도도 빨라 매우 편리하기도 하다. 다만 인쇄된 형태의 출력이 필요할 경우 책자의 단순복사에 비해 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2) 情報提供 서비스

한 가지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교수들은 그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늘상 관련 분야의 전문서적이나 학술지를 훑어보게 된다. 그러나 그 학술지가 연구실 가까이 있지 않거나, 그 대학도서관에서는 구독하지 않는 것이라면, 최근 연구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 교수들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학술지의 목차를 복사하여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연구원의 문헌속보 제공 서비스를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고 그 내용도 보강하여 이를 싼 값으로 보급해 주면 좋을 것이다.

문헌 제공 서비스는 1차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2차 자료의 제공이 일반적이나, 연구문헌수집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차 자료를 구해 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필자는 영국 유학시절에 대학도서관의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자료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대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고, 필자의 연구 분야에 관한 문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참고문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는 대학도서관에 확보하지 못한 문헌에 한해서 일주일에 3개 이내의 참고문헌을 외부에서 구하여 복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본인이 해당 1차 자료를 찾아 직접 복사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많은 참고문헌을 구할 수 있었다.

영국 대학에서는 '70년대에 벌써 Inter-library

loan system이 완전하게 구축되어 영국 국내에 있는 문헌은 일주일 이내에 복사해 주고, 외국에서 구해야 하는 문헌은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소개할 대여도서관(lending library) 제도가 있어 각 대학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도서를 이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각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대출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헌을 영국 내에서 구할 수 있었다.

3) 學位論文의 관리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나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대학원생에게 매우 유익한 연구자료는 관련 분야의 학위 논문들이다.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과는 달리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연구자료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신규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연구 입문서가 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은 몇 부만을 제작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그 논문을 복사된 형태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제공해 주는 회사에 논문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들 회사를 통하여 대학의 논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석·박사 학위논문은 이러한 보급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선진 외국 대학의 논문보다도 입수 절차가 번거롭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양과 질 모두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연구자료로서의 학위논문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고, 만일 이러한 기구의 설치가 어렵다면 몇 대학이 학문 분야별로 나누어 학위논문을 관리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광파일링시스템(filing system)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CD롬 하나에 수만 페이지의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어 학위논문을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더욱이 광파일링시스템은 1차 자료의 보급기능만을 가진 마이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피치(micro-fiche)와는 달리 간단한

검색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연구전산망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문헌구입을 아주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4) 學術 電算網 구축

현대는 컴퓨터 시대이며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저장, 이동, 검색, 취득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BITNET 를 통해서 외국 대학과 연구소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하여 외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도서관을 연결해 줄 학술전산망의 구축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쩌던 지난 몇 년 사이에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몇 년 전에 세워 놓은 전산망 구축사업계획이 전던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또 얼마 가지 않아 행정전산망, 교육전산망, 국방전산망 등 여러 종류의 전산망을 구축하려는 현재의 사업계획이 모든 전산망을 통합한 단일의 초고속 국가전산망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의 개발로 대폭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21세기 초에는 모든 연구실과 대부분의 가정에서 각종 학술정보를 터미널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초고속 학술전산망이 독자적이거나 통합전산망의 일부로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학술전산망 가동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전산망에 연결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완전한 학술전산망이 가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산망 구축 프로토콜(protocol)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 대학도서관의 전산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도서분류체계가 통일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데이터베

이스 구축방식이 서로 달라 전산망에 의한 통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학위논문이나 교수들의 연구논문에 관한 검색용 자료들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나, 이것이 미래에 구축될 학술전산망에 연결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더욱이 그 어느 곳에서도 1차 학술자료를 파일링하여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학술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5) 貸與圖書館의 운영

선진국 일류 대학 도서관의 장서수는 300 만 권 이상이며, 웬만한 대학도서관도 100 만 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대학도서관인 서울대 도서관의 장서가 100 만 권 수준인 점을 생각할 때에 도서의 확충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 더욱이 과거에 출판된 도서의 확보와 함께 신규 도서, 특히 고가의 학술지 구입도 대학도서관의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은 圖書館間 貸與制度(inter-library loan system)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학술지 이외의 학술지를 각 대학도서관의 협의에 의해 대학교별로 나누어 구입하고, 도서관간 대여제도에 의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학의 도서구입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빈도가 높지 않고 高價이거나 稀貴한 문헌을 구입하여 이를 각 대학도서관에 대여해주는 中央貸與圖書館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만일 앞으로 전자책이 일반화되고, 기존의 연구자료들이 광파일로 작성된다면 중앙대여도서관은 연구전산망의 센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대학도서관의 강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짧은 대학의 역사와 대학 재정의 부족으로 아직 교육과 연구를 충분히 지원해줄 수

가 없었다. 이 글에서는 평범한 대학교수 입장에서 대학도서관이 교육과 연구 지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은가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러한 희망사항 중의 일부는 이미 일부 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과 연구의 선진화는 국가 선진화의 선행 요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도서관의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대학이 간단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 말은 정보혁명의 시기이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여 대학도서관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이 연구 결과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